

2024. 4. 30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
한강개발기획과

한강사업총괄부장	윤석환	3780-0865
한강개발기획과장	이주영	3780-0629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7쪽

서울시, '한강 수상활성화 밑그림'에 시민·전문가 목소리 담는다

- 29일(월) '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' 실행과 한강 비전 논의 위한 토론회 열어
- 시민 비롯해 문화·관광·안전 등 여러 분야 전문가 모여 주제발제, 토론 등 진행
-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검토 후 향후 사업에 반영 계획... 다양한 의견 지속 수렴

- 앞으로 한강에 들어설 수상오피스, 수상호텔, 서울향이 건물·숙박시설·여객터미널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이 된다면 서울시민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? 2030년, 배 1천 대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 들어서면 한강은 시민이 수상레저를 일상에서 즐기는 '대한민국 대표 수상레저 거점'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.
- 서울시가 지난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'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'을 실행하고 한강의 비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비롯해 문화, 관광, 안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목소리를 담은 장을 마련했다.
- 시는 지난 24일(수)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'2030 리버시티, 서울'로 조성하기 위한 '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' 3대 전략,

10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. 3대 전략은 ①일상의 공간 ②여가의 중심 ③성장의 거점으로 총 예산 5,501억 원이 투입된다.

- 서울시는 서울시의회, 서울시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 ‘한강시민위원회’와 29일(월)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(제2대회의실)에서 ‘리버버스 등 한강 수상이용활성화 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’을 주제로 「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- 토론회는 ▲개회사 ▲축사 ▲‘리버시티 서울,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 주제 발표 ▲지정된 5명의 전문가가 발표하는 ‘토론’ ▲시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.
 -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,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,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,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토론회를 빛내주기 위한 축사를 했다.

- 주제 발표에는 이예림 서울시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나서 ▲한강에 수상오피스·수상호텔 등을 띄워 한강을 ‘일상의 공간’으로 ▲100척 보트 퍼레이드쇼, 한강 최초 케이블 수상스키장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‘여가의 중심지’로 ▲1천 석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확충, 한강 리버버스·서울항 등 한강의 물길을 열고 ‘성장의 거점’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□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토론 시간에는 ①시민이 진정 즐기는 한강을 위한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 ②글로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최대 자산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③한강 수상활성화 계획 기대와 제언 ④지속가능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제언 ⑤수상활성화 위한 한강 안전관리 중요성, 5가지 소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.

- 1번 주제 :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춘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,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, 환경문제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.
- 2번 주제 :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이 발표를 맡았다. 서울의 자산, 한강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대해 산업, 문화, 관광, 휴식, 환경 등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.
- 3번 주제 : 유흥주 수원대학교 교수는 ‘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으로 한강은 둔치 중심에서 수면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고, 한강의 마리나시설 규모 확대,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의 서울항 조성 등 종합계획에 대해 제언했다.
- 4번 주제 :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상오피스, 한강 리버버스, 서울항 등이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전달했다. 예컨대, 수상오피스와 서울항은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기능을 갖춰야 하며, 한강 리버버스는 낮 시간에 투어버스로도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. 또한 한강이 치맥과 야경을 즐기는 공간을 넘어 글로벌 복합 여가문화 공간으로 변화해 미래

K-Culture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- 5번 주제 :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 계획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가 한강에 조성됐을 때의 안전성 검토, 홍수 발생 시 한강 접근성에 대한 안전, 다양한 시설별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안전 확보, 하천의 핵심 가치인 ‘생태’를 위한 안전 계획 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.

□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, 시민 의견을 검토해 향후 ‘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을 실현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‘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,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토론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문가,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과 함께 한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토론회 개요(안)

- 일 시 : '24. 4. 29.(월) 15:00 ~ 17:00
- 장 소 :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(중구 덕수궁길 15)
- 참석 대상 : 서울시의원, 서울시 관계자, 한강시민위원회, 시민 등
※ 서울시의회 유튜브 중계
- 주 제 : 리버버스 등 수상이용활성화 계획 및 향후 발전 방안
- 주최/주관 :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, 서울시, 한강시민위원회
공동 주최/주관

 진행순서(안)

구분	시 간	내 용	비 고
1부	15:00~15: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개회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석 인사 소개 - 개 회 사(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) - 축 사 (서울시의회의장,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,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, 행정2부시장) 	사회 : 유채린 아나운서
2부	15:20~15: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버시티 서울,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	발제자 : 한강전략사업부장
	15:50~16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토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야별 전문가 토론 	좌장: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
	16:30~17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질의응답 및 마무리 발언 	





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



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



토론하는 참석자들



축사하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